

새로운 리더십 연구의 방향: 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지 수**

I. 들어가는 말

새 정부가 출범한 지도, 9월 25일이면 정확하게 7개월이 지난다. 그동안 이 명박 정부는 이른 바 언론과의 정치적 밀월관계를 누릴 틈도 없이 취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온갖 구설수, 비판을 기존 지지층을 망라한 지지층 내외로부터 받았다고 관찰된다. 이러한 관찰은 정확한가? 여론 조사의 결과는 얼마나 실재를 반영하고 있는가? 만일 여론 조사로 나타나는 지지율의 급격한 저하 현상이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비판받는 측의 잘못인가 혹은 비판하는 측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가? 잘못과 오해의 구분은 어떻게 가능한 가? 이러한 무수한 질문에 대해서, 선뜻, 정권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민심의 오해라거나 하는 식의 양자택일 식 결론에 빠지려고 하는 유혹만큼은 물리쳐야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정치 현장의 여야 간 설전에서 왕왕 보는 바이기에 새로울 것이 없기 때

* 본 연구는 언론재단의 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과제로서 이하 두 편의 글(차동욱, 배병인)과 함께 일련의 연구 보고서로 읽을 것을 당부한다.

** 명지대학교

문이다. 단순히 양비론적인 절충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각각에 어느 정도씩 문제가 있다는 해답 역시 문제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에는 별 효과가 없는 듯하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하락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기서는 리더십(leadership)¹⁾을 문제 삼고자 한다. 여기서 리더십을 문제 삼는다는 말은 얼핏 두 가지 경우로 나뉘서 짐작될 오산이 크다. 첫째는, 정권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는 것 아닌가하는 예단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지율 하락으로 대변되는 현상을 정책의 실패로 보고, 이를 단순히 지도자의 정책 수행, 관리 능력의 부족함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는 지도자의 리더십 가운데 설득력이라는 요소를 문제 삼으려는 가하는 짐작이다. 역시 우리는 설득력의 부족,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의사소통, 설득의 능력 부족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리더십을 지도자의 능력의 일방적 영역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리더십이란 리더에 대비되는 팔로워(follower) 혹은 하위자, 혹은 시민, 언론 등²⁾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하려 한다.

다시 말하자면, 대통령이나 언론 어느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양자와의 관계 속에서 과연 어떤 역동성이 작용하는 지가 문제 접근의 첫 걸음이다. 기존의 개념을 빌어 굳이 설명하자면 리더십과 팔로워십(followership)을 통합하여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언론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리더십의 양상의 한 측면을 관찰해 볼 수도

- 1) 리더십은 단순히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피지도자, 지지자 혹은 시민, 여기서는 언론을 상정하여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내지 상태라고 정의하고 본 논의를 시작한다.
- 2) 리더십의 리더란 단어는 팔로워라는 단어와 대비된다. 이 연구에서는 별다른 단서가 없는 한, 줄곧 리더란 제한적으로 대통령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팔로워에 해당하는 영역은 시민, 유권자, 언론, 정당, 시민단체 등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역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언론을 뜻하기로 한다. 이제부터는 대통령과 언론이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겠다.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한다.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비판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그러므로 언론과 권력의 관계를 흔히 긴장관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원칙을 언론 스스로 깨는 시기가 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출범해서 몇 개월의 시기가 이에 해당한다. 흔히 정치적인 밀월기라고도 불리는 이 기간 동안만큼은 언론이 새 정권의 정책에 시시비비 탄축을 걸기보다는, 오히려 “새 정권은 언론의 전폭적인 도움아래 전 정권의 잘못을 고치고 국정 과제를 새로 세우고, 개혁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새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이념과 정책을 현실에 접목시키는 이 시기에 언론이 탄축을 건다면 국민의 선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³⁾ 과연 이명박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어떠했는가, 당선 된 후 6개월간의 시기에 대한 언론의 사실과 논평을 대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리더십에서 서번트십(servantship 혹은 servant leadership), 다시 펠로우십(fellowship)이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펠로우십을 지도자, 일방의 능력에 해당하는 부분(변혁적 리더십)과 언론, 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부분(거래적 리더십)으로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양자 영역이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점이다. 양자와의 관계를 규명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II. 왜 리더십인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지배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리더십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아마 근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민주주의 이념의 원리와 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와 지지가 강조됨에 따라

3) 이진희, 『주간한국』 2003년 3월 3일자.

<http://weekly.hankooki.com/whan/200303/w2003030310063461510.htm>(2008.8.23)

과거의 지배력(支配力)과는 다른 함의의 지도력(指導力)이라는 개념이 출현하게 되었다. 지배력과 지도력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가 물리력을 통한 위압이나 물질적 자원을 사용한 회유 등으로 구성원으로 하여금 수동적인 순종을 이끌어 내는 것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라면 후자는 성원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능력으로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전자가 (지도자의)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후자는 (피지도자의) 자발성에 주목했다고 이해된다. 그러나 두 개념은 공히 지배자이건 지도자이건 피지배자 혹은 피지도자의 영역을 제외하고 전적으로 그 자신만의 영역에 한정해서 규정되고 있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배력이건 지도력이건 어디까지나 치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일종의 “rulership”으로서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

최근 들어 서서는 피지도자의 자발성에 주목하는 데서 나아가 피지도자를 섬기는 헌신성을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이른바 서번트십 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사회 구성 구조상 양분 되는 영역 - “the ruler” (일방), “the ruled”(타방) - 에 있어서 전자 영역에 존재하는 사람에 대한 이상형은 끊임없이 다양하게 제기 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섬기는 능력만이 이상적인가? 혹은 강제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만이 좋은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전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이러한 능력이 미덕이라고 생각하기는 무리다. 궁극적으로는 시공적 상황에 적절한 능력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무튼 현대사회에서 조직의 장으로서 리더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게 강조되는 추세이나 점차 그 방향은 일방이라 할 수 있는 리더 일개인에게 국한되기보다는 타방이라 할 수 있는 팔로워와의 관계를 전제로 구성되고 있는 편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전형적 리더십이 강조되는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집단의 유기체적인 리더십이 중요해졌다.⁴⁾

III. 리더십에 대한 개념적 발전 고찰

리더란 말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리더십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라고 한다.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고 한다.⁵⁾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한 중앙일간지를 검색해 본 결과, 1965년 10월 12일 기사에 처음으로 리더라는 용어가 등장한다.⁶⁾ 그러나 본 기사가 지령 18호에 실린 점, 이어 10월 16일, 10월 23일 등등, 짧게는, 3-4일에 한 차례, 길게는 6-7일 마다 한 번씩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용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리더란 단어가 「」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아직 일반에게 생소한 표현이 아니었던 가 짐작 된다. 당시 지면을 보면, 주로 관가와 국회 등을 다룬 2면에 등장하고 가끔 스포츠 면에 등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동 신문의 최근 지면에는 대체로 매일, 예를 들어, 9월 23일자를 보면 4차례 다양한 지면에 쓰여 지고 있다. 그만큼 일반화 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한편 리더십이란 용어가 등장한 시점은 좀 더 뚜렷한 듯 했다. 동 신문의 창간호부터 검색해 본 결과, 1965년 9월 창간호부터 1969년 12월 31일까지 한 번, 1968년 6월 12일자 2면에 유일하게 등장 한다.⁷⁾ 그러나 이번엔 글자를 바꾸어 리더십 으로 검색한 결과는 좀 달랐다. 1965년 10월 2일 (지령 10호) 2면 사설에 리더십이란 용어가 처음 나오면서⁸⁾ 이후로, 11월 23일자 학생의

4) 이 때 리더십은 팀워크 구분 된다. 전자가 리더, 팔로워 간의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후자는 팔로워간의 수평적 관계에 착안하고 있다.

5) 윤종성,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 박정희, 김대중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정치학박사학위 논문, 2007.

6) “민중당 지도위원이며 온건파 ‘리더’인 조재천 의원은...,” 『중앙일보』 1965년 10월 12일자, 2면.

7) “...새 ‘아메리카’를 건설할 ‘리더십’ 확립에 실패한 구 정치인들은...” 『중앙일보』 1968년 6월 12일, 2면 사설.

정치 의식 구조란 기사에도 한 번 더 등장한다. 이어서 66년에는 13 차례, 67년 5차례, 68년 11차례, 69년 25차례 등장한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리더쉽이란 용어가 비록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1965년 10월 2일 이전에도 사용된 것 만은 분명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 지면에 등장한 용어들에 관한 통계표이다.

<표 1>9)

용어\시기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리더쉽	(2)	13	5	11	25	32	28	20	12	14	12	9	2
리더십	(0)	0	0	1	0	3	2	3	3	7	8	0	7
계	(2)	13	5	12	25	35	30	23	15	21	20	9	9
지도력	(4)	14	14	10	24		14		11				
통솔력	(1)	2	2	2	3		2		5				
영도력	(2)	15	23	13	38		11		9				
계	(7)	31	39	25	65		27		25				

용어\시기	'78	'79	'80	'81	'82	'83	'84	'88	'99	'08.8
리더쉽	1	1	2	0	3	1	1		2		0		1
리더십	10	19	27	17	14	22	26		38		140		54
계	11	20	29	17	17	23	27		40		140		55
지도력	15		43						64				7
통솔력	3		2						3				0
영도력	11		25						4				0
계	29		70						71				7

8) "... '슈카르노' 개인의 확고한 '퍼스널 리더쉽'이 자리잡혀..." 『중앙일보』 1965년 10월 2일자, 2면.

9) 2008년 9월 25일, 『중앙일보』 인터넷 검색. <http://www.joins.com>

리더십(혹은 리더쉽)이란 용어가 중앙일보 창간 전부터 사용된 사실을 확인한 이상, 타 신문의 경우를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 유감스럽게도 해방이후 신문이 전자 검색 가능한 것은 『조선일보』 뿐이었다. 『조선일보』 1945년 1월 1일자부터 1969년 12월 31일자 까지의 리더쉽 혹은 리더십이란 용어가 쓰여진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 2>10)

일련 번호	내용	일자	지면
1	국내외 여론 「찬반」두갈래로. 케네디 연두교사와 그 반향. 영국, 바라던 「리더쉽」제공. 프랑스, 제시련에의 도전에 충격 우호협조 불언급도 주목	1961.01.31	석간 2면
2	소·중공의 타협없는 투쟁으로 흔들리는 공산세계. 「리더쉽」을 싸고 혈전, 동독공당대회는 서막에 불과	1963.01.20	조간 3면
3	후진민주국가의 「리더쉽」. 미국 「페어리·디킨슨」대학에서의 金鍾泌씨 연설내용	1963.09.22	조간 4면
4	[한국의 근대화와 새 지도세력. 외유8개월……귀국의 변(전3회)] (3)세대교체와 리더쉽 [기고자] 김종필	1963.11.10	조간 3면
5	한국에 있어서의 리더쉽. 연세대 행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의견은 대체로 두갈래. 민주적 지도자, 선의의 독재도	1963.11.12	조간 6면
6	번스틴 유승처장 연설 “한국경제 발전위한 3요소는 안정-저축-리더쉽”	1964.09.17	조간 2면
7	[사실] 여론정치 의 중요성 - 정부의 리더쉽에 반성을 촉구한다 -	1966.07.22	조간 2면
8	한국민족주의 어제와 오늘. 미국외교정책과 한국민족주의 (朴奉植) - 비국의 대한정책과 불가분 / 한국민족주의에의 도전과 시련 (車基壁) - 「근대화」우선에 압도당해 / 한국민족주의의 주도층과 리더쉽 (高永復) - 담당세력은 중간층에서 / 한국민족주의의 제문제 (李用熙) - 도시·농촌의식결합 필요	1966.10.27	조간 6면

10) 『조선일보』 인터넷 검색 결과. <http://www.chosun.com>

일련 번호	내용	일자	지면
9	<청서>학생들의 리더십 세미나르	1967.04.18	조간 5면
10	격동속에 능동성씨는 「월남정가」 다져지는 「반공」. 민방위 대-구국전선 결성 방관하던 국민들 정부리더십 갈구 [기고자] 유지형	1968.03.01	조간 6면
11	리더십 공백의 서구. 통합주의 후퇴, 영국-서독과 각축, 선 거연설 통해본 대유럽觀	1969.06.17	조간 3면
12	리더십의 병리학. 영국 휴 레탕박사의 이색저서, “병때문에 역사도 변질됐을 것”	1969.11.18	조간 4면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Leadership” 이란 용어가 사용되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한 신문을 검색 해 본 결과, 1851년 9월 18일 창간한 이래, 1851년 10월 13일자에 한 번¹¹⁾, 이어 11월에 두차례, 다음 해인 1852년에는 18회 등장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리더십이란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51년 9월 이전부터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9세기가 저무는 1989년 한 해를 통털어, 415회 등장한다. 위의 한국의 신문과 같은 예를 들어 본다면, 2008년 8월 한 달간 192번 “leadership” 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리더란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조응하는 개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령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이나 공자가 거론하는 군자는 일방적인 지배자라기보다는 피치자와의 상호 소통을 중시하는 리더의 개념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플라톤은 철인 통치를 얘기하면서 명예를 가진 전사 가운데 지에 대한 사랑으로 이데아를 보는 능력을 가진 철인이 국가를 이끌게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¹²⁾ 아리스토텔레스는 에로스(믿음만한 삶), 로고스(의미 있는 메시

11) *New York Times*, 1851년 10월 13일자. G. M. Dallas의 공개 편지.

<http://query.nytimes.com/search/query?query=leadership&d=&o=&v=&c=&n=10&dp=0&daterange=period&srcht=a&year1=1851&mon1=09&day1=18&year2=1980&mon2=12&day2=31&srchst=p&sort=oldest> 검색(2008.8.23)

지), 파토스(긍정적 반응)를 중심으로 치자의 영향력을 논하였다.¹³⁾ 또한 근대 들어서서 마키아벨리는 필요성을 덕목에 더하여 행운까지도 군주의 요건으로 거론한 바 있다.¹⁴⁾ 동양에서도 일찍이 공자에 의해 인의정치와, 맹자의 왕도론이 치자의 덕목으로 논의 되었다.

현대 들어와서 리더십의 공통적인 개념 요소는 리더의 영향력, 지도력 등 리더의 영역으로 국한되었었다. 이는 관리 개념과도 구분 되는 추세이다. 전자가 제도적, 시스템적 차원의 개념이라면, 후자는 인성적 차원에 집중된다고 볼 수 있고, 전자가 현재 진행형에 가깝다면, 후자는 미래 지향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특성 이론(Trait Theory, 혹은 자질론)에서 더 발전하여, 행태주의적 관찰의 결과들을 토대로, 경험적 사례 연구에 의해, 하위자들과의 상호관계의 중요성이 발견된 바도 있다. 요즈음은 상황이론(Contingency Theory)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것이 다시 리더십을 관조적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주 최근에 들어서서는, 카리스마적 리더십(Charismatic leadership theory), 원칙 중심적 리더십(Principle theory of leadership),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theory)으로 제시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변혁적 리더십의 개념에서 다시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을 구분해서 양 개념을 비교하거나 혹은 후자를 전자의 하위 개념으로 설정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경우도 있다.¹⁵⁾

지금까지의 리더십과 관련 된 개념, 이론들은 리더-팔로워의 구도를 설정하고 한 축인 리더의 자질, 능력에 집중되어 서술된 측면이 강하다.

12) Francis MacDonald Cornford, trans., *The Republic of Plato* (New York &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4).

13) Ernest Barker, ed. and trans., *The Politics of Aristotl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2).

14) Luigi Ricci, trans., *The Prince and The Discourses by Niccolo Machiavelli* (New York: Random House, Inc., 1950).

15) Peter G. Northouse, 김남현 김정현 옮김, 『리더십』 (서울: 경문사, 2001)

IV. 상호관계로서의 리더십 언론과의 관계

기존의 리더십과 언론의 관계는 주로 언론에 비쳐진 리더십의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즉, 리더십을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고 다루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언론은 리더십이란 대상을 다루는 보도 주체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언론이 이상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다. 언론(기자 개인 혹은 전체로 대변되는 언론 매체 자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한 입장(공식, 비공식적 지지 여부)과 특정 사안들에 대한 개별적 견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보장이 미미하다. 그러므로 언론 자신은 실상 권력의 리더십이 이미지로서 일반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비단 알려지는 과정 뿐 아니라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이미지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간여한다는 점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모처럼의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도자에게 그 공을 돌리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아무리 배타적인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위기 극복이나 태평성대의 달성을 왕 자신이 혼자 노력하여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드시 절대 다수 국민들의 노력과 공이 함께 수반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즉, 성왕에게는 하늘과 같은 백성이 따른다는 이치와도 같은 것이다. 반대로 위기극복에 실패했다거나 혹은 공동체를 영위하는 것이 순조롭지 않을 때 흔히 쉽게 지도자에게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역시 지도자의 잘못 만이라고 보기에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일방의 능력과 유관되어 인식된 리더십을 타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관찰하고자 한다. 즉, 시공간,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 다른 모델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실제 리더와 팔로워의 역

동적 관계의 산물로서 리더십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리더의 존재는 다수의 팔로워를 전제로 한다.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를 리더십으로 정리 해 본 일종의 가설로서 다음과 같은 표를 전제로 해 보자.

<표 3>

	Good leader	Bad leader
Good followers	1)Good leadership	2)Troubled leadership
Bad followers	3)Troubled leadership	4)Bad leadership

우리는 상식적으로 좋은 지도자에게는 사실 좋은 다수의 시민들이 있게 마련인 것을 종종 소홀히 한다. 즉, 리더십의 요체는 비단 지도자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방인 지지자 혹은 구성원들의 품성 까지도 포괄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은 지도자의 능력보다는 지도자와 지지자의 관계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상식적이지만 그 관계는 항상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리더십은 항상 유동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리더와 구성원을 구분하고, 리더가 애초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혹은 지행하고자 하는)가 구성원들의 반응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성원이란 다층적이고 복잡적이다. 일반 시민, 공무원, 혹은 유권자, 심지어는 지도자의 지지자들을 망라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뿐 만 아니라 단체이기도 하다. 혹은 유권자로서의 공무원으로 대변되는 정부 일수도 있다. 정당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로 관찰 한 것은 몇 몇 신문의 사실 및 보도이다. 이것은 물론 언론기관의 기자 나아가서 당해 편집부의 관찰 결론이자 주장이다. 이들 언론 기관의 태도는 대체로 지지와 반대가 갈린다고 평가된다. 일종의 여당지 혹은 야당지와 같은 구분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follower”를 언론이라고 상정할 때, “good” 혹은 “bad”의 지지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정책 사안마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견제, 비판 기능을 수

행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될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무조건적인 동의가 아니라 언론 자신이 스스로 보다 객관적으로 행동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언론의 정당한 기능수행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친다. 정확성인가 사회정의인가라는 고답적인 언론의 사명에 대한 논란을 반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합리적 차원으로 문제를 접근하려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정리해 볼 수 있다.¹⁶⁾

<표 4>

차원	권력의 행위에 대해 보도, 논평하는 기준	기조	특성
감성적 차원	전통적 경험 혹은 선거 당시 지지 여부	好惡	관성
이성적 차원	여론과 관계 전문가들의 찬반 견해	是非	합리성
이데올로기적 차원	언론 당사자 자체의 이데올로기적 판단	彼我	고정성

이 표를 기준으로 본다면 좋은 언론이란 이성적 차원에서 여론을 감안하여 전문가들의 견해를 참고로 하여 구체적 정책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도, 논평 태도를 덕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적 혹은 사상적 차원은 좀 논쟁적이다. 여기서는 보류한다.

정리하면, 이 연구의 주 관찰 개념은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여기서 리더십은 단순히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라, 대통령과 팔로워간의 상호 관계의 역동성 속에 전개되는 양상, 혹은 형성되어지는 소산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구체적으

16) 알몬드와 비바는 정치구성원들의 정치문화를 향당 또는 향리형(parochial), 신민형(subjective), 참여형(participant)으로 구분한 바 있다. Gabriel A. Almond & Sidney Verba,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Little, Brown and Company, 1965). 이 개념을 그대로 현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란 무리다. 필자는 이 분류에 따르면 세 번째인 참여형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감성, 이성, 사상(consciousness raising)의 차원으로 나눈 것은 루카치의 개념을 차용해 본 것이다. Georg Lukács,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MIT press, 1971).

로 대통령과 언론을 양측으로 설정하고,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입장(친정부 혹은 반정부)에 따라, 또 구체적인 정치 행위(연설, 정책, 법안 등)에 대한 평가에 따라 어떻게 수용하고 무시하느냐에 따라 대통령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표는 언론 기관의 태도(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를 기존의 입장(선거 기간 공식 비공식적 지지여부)에 따라 구분해 본 것이다. 총 네 가지 경우를 상정했을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반응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5>

태도/입장	지지	반대
+평가	1)	2)
평가	3)	4)

1), 2)의 경우에는 개혁적 리더십이 부각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 경우 언론으로부터도 호의적인 반응을 얻으므로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 집행될 수 있다.

문제는 3)의 경우에 과연 대통령 혹은 권력이 설득적으로 움직이는가 혹은 거래 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따라 리더십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4)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 여기서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가설적이고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다. 자료 분석을 통해 어떻게 리더십을 설명할 수 있는지는 지금부터의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언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이한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일단 대체로 자신에게 호의적인 혹은 순응적, 수용적인(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언론, 언론인들과의 관계는 상호 경청, 상호 수용적 리더십이 대통령에게 보인다. 그러나 적대적인 혹은 비판적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는 다양한 형태로 나뉜다. 가령 박정희는 초기 집권기에는 비판

적인 언론인들을 기용하는 용인술을 통해 비판적 언론을 포용하려는 리더십을 보여 주었다고 하는 평가가 있다.¹⁷⁾ 그래서 비판 언론인들 가운데정권에 들어 간 이들은 일부로 부터는 변절자라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박정희의 경우, 가령, <표 2>의 이성적 차원의 반대 비판에 대해서는 관대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경우의 반대에는 적대, 배제 적이었다고 한다.¹⁸⁾ 이 주장에 따르면, 호오가 분명했던 것이 박정희의 언론과의 관계 리더십의 다양함을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전두환은 언론과의 관계가 사뭇 군림 형이었다는 평가가 있다. 워낙 강압적인 조치¹⁹⁾를 임기 전에 취한 까닭에 당시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은 정부와 대통령에 대해 순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두환으로서는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상호 작용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순응을 즐겼다고 해야 적당할 듯하다. 박정희가 주로 그에게 비판적이나 상대적으로 능력을 인정한 기자를 발탁한데 비해, 전두환에 의해 발탁된 언론인들은 순응성이 높은 성향들이었다는 말이 있다.

이에 반해 무조건적으로 언론과 친화적이었다는 평을 듣는 대통령이 김영삼이다. 그는 친여 친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인들을 친화적으로 대했다는 것이 주변의 평가이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김영삼은 이전의 언론 친화, 설득형의 리더십 보다는 서운함, 분노와 같은 태도를 보여주곤 했다고 한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정적으로 언론 매체 탓이라는 고정 관념이 있었으며, 정부 각 부처의 최고 엘리트 관료를 홍보 담당으로 강요하게 할 정도로 언론 관리

17) 박 정권 초기 발탁 된, 이만섭, 유혁인, 임방현, 김성진 등은 군정에 비판적인 편이었다고 한다. 이들을 발탁한 박정희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정성화 외,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연구자와 체험자의 대화』 (서울: 선인, 2007). 에 자세하다. 훗날 반체제 언론인으로 유명한 송건호에 대해서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은 초창기 스스로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18) 사상계 장준하에 대한 박정희의 태도는 확실히 차별적이었다고 한다.

19) 전국 1도 1신문사, 각종 언론 통폐합 등이 전두환 정권 출범 직전, 당시 초법적 기구였던 국보위에 의해 단행되었다.

에 신경을 썼다고 한다. 무조건적인 친화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혹은 언론 견인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도 있다. 초기와 말기로 가면서 리더십이 변한 것도 특징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형적으로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 갈등형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노무현이 친화적 리더십을 보여 준 언론은 제도권에 진입하기엔 아직 시간적 연륜이 짧은 인터넷 언론 몇 개 뿐 이었다. 그는 집권 기간 내내 거의 모든 제도권 언론에 대해 갈등적인 리더십을 보여 주었는데 임기 말기 정부 부처의 기사실 폐쇄 조치는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 실행 방식의 일방성으로 논쟁의 소지를 제공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들의 저변에는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대통령 고유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의 대 언론 리더십은 오로지 대통령 자신만의 재량에 따라서 형성된 것일까? 혹 언론, 혹은 언론인들에게는 시선을 돌릴 필요가 없을까? 이 글에서의 논지를 따르자면, 각 대통령 당시의 언론인들의 언론인상 혹은 일종의 “followership”에 대해서도 참작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대체로 대통령과 언론이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가는 양자 공히의 태도와 인식 문제일 것이다.

V. 결론에 대신하여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7개월간의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요인이 정권 초기부터 여론의 지지를 상실케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비슷하게 전개된 바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새 정부에 대한 여론 악화의 원인 전체를 규명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배경적 요인의 하나로서 지도자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고 살펴 보려고 하였다. 과연 리더십에 문제는 없었는가? 여기서 연구자는 리더십 만이 문제였다거나 혹은 리더십외에 다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는 주장을 애초에 배제하고 리더십의 경우에 대한 문제의 소지에 대해서 일단 집중하여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이러한 정권 초기 지지율 혹은 여론의 악화에는 리더십이 문제의 소지 중의 하나였다는 점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먼저 왜 리더십이 문제인가에 대한 고찰과 리더십 개념이 어떻게 변화 되어 왔는가를 살펴 보았다. 리더십이란 개념은 외래어인데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그리 오래 된 것은 아니었다. 물론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사회가 변화하고, 국가의 개념이 변하며,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고, 또 국가 지도자의 위상이 변해 온 것처럼 국가 지도자의 소양 혹은 덕성으로 사용되던 리더십이란 개념도 변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사회 출현, 매스미디어 혁명,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규명될 수 있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리더십이 단순히 리더의 영역에 국한 한 것이 아니라 팔로워와의 상호 관계속에서 새롭게 정의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단순히 리더십의 문제에서 리더와 팔로워, 여기서는 일반 시민 간의 소통의 문제로 당초의 정권 초기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데까지 생각이 전환하였다. 즉, 정권 지지율의 하락은 단순히 리더 영역만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일반 시민의 태도 혹은 인식과 함께 보아야 보다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지도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언론의 영역에 눈을 돌려서 과연 언론의 지도자 혹은 정부에 대한 태도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이르른 것이다. 애초, 지지율 하락이란 정치 현상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여 이를 다시 리더십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해 보았다가 이제는 일반 시민의 태도 인식에도 비슷한 비중의 관심이 가중되어야겠다는 발상에 이르러서야 일반 시민의 그것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언론의 지도자 정부에 대한 태도 인

식에 대한 조명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과연 어떤 점들이 정부 지도자에 대한 인식 태도를 결정하는가를 우선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 기준은 감성(기억), 이성(是非), 이데올로기(彼我)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아이디어는 알몬드와 버바의 정치문화형의 구분, 루카치가 사용한 개념 등에서 차용한 것이다.

그리고 실제 샘플이 되는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의 4개 신문 사설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가설적인 분류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실제 조사해 보았다. 결과, 대체로 샘플이 된 언론의 사설은 지도자 정부에 대한 태도나 의식을 대체로 이성적 차원의 시시비비를 가려 보려는 데서 결정하기 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유래된 듯이 보이는 우리 편, 네 편의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물론 이 연구는 어디까지나 실험적인 사전 연구에 불과하다. 뒤에 이어질 두 편의 글들과 함께 읽혀져서 궁극적으로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리더와 시민간의 소통, 언론의 역할 등등에 관한 본격적이면서 보다 진지한 연구들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정도의 결과에 그쳤다는 것은 연구자로서 매우 아쉬운 점이기도 하면서 그나마 관련 분야 비전문가의 무모한 시도라는 점을 감안하여 줄 것을 독자들에게 간곡하게 아뢴다.

<접수일: 2009. 3. 10, 심사일: 2009. 4. 3, 게재확정일: 2009. 5. 8.>

초 록

새로운 리더십 연구의 방향: 언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 지 수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7개월간의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과연 어떤 요인이 정권 초기부터 여론의 지지를 상실케 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정권 초기 지지율 하락 혹은 여론의 악화에는 리더십이 문제의 소지 중의 하나 였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히 리더십의 문제에서 리더와 팔로워, 여기서는 일반 시민 간의 소통의 문제로 당초의 정권 초기 지지율 하락이라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까지 생각을 전환하였다. 즉, 정권 지지율의 하락은 단순히 리더 영역만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일반 시민의 태도 혹은 인식과 함께 보아야 보다 입체적으로 보인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지도자에 대해 갖는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로 언론의 영역에 눈을 돌려서 과연 언론의, 지도자 혹은 정부에 대한 태도 인식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데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몇몇 언론사의 사설을 통해 과연 어떤 점들이 정부 지도자에 대한 인식 태도를 결정하는 가를 우선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하였다. 그 기준은 감성(기억), 이성(是非), 이데올로기(彼我)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제 샘플이 되는 이명박 정부 출범 7개월간의 4개 신문 사설에 대한 분류를 통해 가설적인 분류에 따르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를 실제 조사해 보았다. 결과, 대체로 샘플이 된 언론의 사설은 지도자 정부에 대한 태도

나 의식을 대체로 이성적 차원의 시시비비를 가려 보려는 데서 결정하기 보다는 과거에 대한 기억과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의 차이에서 유래된 듯이 보이는 우리 편, 네 편의 차원에서 결정된다는 협의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했다.

주제어: 리더십, 팔로워십, 소통, 지지율

Abstract

A Pilot Study on the New Concept of Leadership: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and Mass Media

Lee, Ji-sue

What does impact on the leader(president)'s approval rating? Good leadership is not the only answer anymore. Also important is good followership. From the point of view what good followers can have a good leader, One of most important things is followership. Good followership is what? Three dimensions can be supposedly categorized in the concept of the followership ; emotional, reasonal, ideological.

The result of analysing 4 newspapers' leading articles is that the their attitude to the leader (president) is more emotional and ideological than reasonal.

Keywords: leadersip, followership, communication, approval rating

참고문헌

- 윤종성. 2007. “대통령 국정과제 수행 리더십 연구: 박정희, 김대중 리더십 비교를 중심으로.” 명지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성화 외. 2007. 『박정희 시대와 한국 현대사: 연구자의 체험과의 대화』. 서울: 선인.
- Almond, Gabriel A. and Verba, Sidney. 1965.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Little, Brown and Company.
- Aristotle. 1952. *The Politics of Aristotle*. ed. and trans. Ernest Barke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Lukács, Georg. 1971. *History and Class Consciousness: Studies in Marxist Dialectics*. MIT Press.
- Machiavelli. 1950. *The Prince and The Discourse by Niccolo Machiavelli*. New York: Random House.
- Northouse, Peter G. 김남현 · 김정현 옮김. 2001. 『리더십』 서울: 경문사.
- Plato. 1964. *The Republic of Plato*. trans. Francis MacDonald Cornford.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주간한국』 <http://weekly.hankooki.com>
-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